

신자유주의의 시간 여행 - 〈재벌집 막내아들〉의 정량화된 삶과 회귀 서사

이효정*

1. 서론
2. 신자유주의 기업가적 자아와 수치화된 삶
3. 〈재벌집 막내아들〉과 신자유주의 통치성
4. 회귀 서사와 미래 통치의 판타지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근 십여 년간 웹소설의 대표적 서사 작법으로 자리 잡은 ‘회귀’ 모티프를 신자유주의 시대를 반영하는 특수한 형태의 시간 여행 서사로 읽어내고자 한다. 신자유주의 통치성 아래 내면화된 개인의 강박적 욕망이 ‘이미 아는 삶’을 다시 사는 2회차 인생의 서사 구조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분석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주체는 시장 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자신을 인적 자본으로 간주하고 스스로를 경영하는 ‘기업가적 자아’로 간주된다. 피터 밀러와 니콜라스 로즈는 이러한 자기경영의 핵심 기제이자 기술적 토대가 인간의 실존을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수치로 환원하는 정량화에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벌집 막내아들〉은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텍스트이다. 주인공은 자신의 생애를 유기적인 포트폴리오로 설

*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사

계하고, 인간관계를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 재편하며, 자신의 모든 성과와 가치를 철저히 수치로 환원하여 입증해 나간다.

이러한 수치화의 이면에는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신자유주의 주체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본고는 엘레나 에스포지토의 개념을 참조하여 회귀물이 이러한 욕망을 서사적으로 실현하는 방식, 즉 주인공이 미래 정보를 활용해 ‘현재적 미래’와 ‘미래적 현재’를 일치시키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회귀 서사는 불확실한 미래의 모험마저 완벽하게 경영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주체의 욕망과 불안을 극적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논의한다.

본고는 회귀 서사의 대중적 열풍을 단순한 장르적 유행을 넘어, 미래라는 개방된 가능성을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로 감각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특수한 감정 구조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를 통해 대중 서사가 시대의 통치성과 개인의 무의식을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연구로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회귀물, 신자유주의 주체성, 기업가적 자아, 재벌집 막내아들, 수치화, 현재적 미래, 미래적 현재)

1. 서론

만약 내가 현재의 모든 기억을 가진 채 실패했던 과거로 돌아가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어떨까? 2000년대 초중반 웹소설 플랫폼을 통해 등장한 회귀의 모티브는 <리셋 라이프 (이그니스, 2006)>의 흥행으로 대중적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 후 수많은 웹 소설의 변주로 이어지며 ‘회귀물’이라 불리는 하나의 서사적 틀이 되었다. 2026년 4월 현재 회귀의 키워드로

검색되는 콘텐츠는 주요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지와 네이버시리즈에서는 각각 4602편, 1543편에 달한다.¹⁾ 국내는 물론 레딧 Reddit이나 노벨업데이트 Novel Updates 같은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도 한국형 회귀물은 되돌아감을 뜻하는 'regression'으로 고유명사화 되어 팬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다. 많은 웹소설들이 웹툰화 되어 관객층을 넓혔고, 〈재벌집 막내아들〉, 〈마이 라이프 어게인〉, 〈내 남편과 결혼해줘〉, 〈판사 이한영〉 등의 인기 웹소설은 드라마 영상 제작으로 이어지며 이제 회귀물은 일반 대중에게도 익숙한 서사 양식이자 용어가 되었다.

인생 2회차 서사로 불리기도 하는 회귀물의 일반적인 서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자신의 인생에서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실패 혹은 죽음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주인공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다시 시작된 인생 2회차에서 그는 전생에서 얻은 미래 정보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능력과 자산을 키우면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한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예정된 파멸을 극복함으로써 마침내 원하는 성공이나 복수를 쟁취해낸다.

주인공이 시공간을 이동하여 운명을 개척한다는 점에서 회귀물은 시간여행 서사의 한 갈래로 볼 수 있다. 1895년 H.G. 웰스의 소설 〈타임머신〉이 '시간 여행'이라는 개념과 용어를 대중화시킨 이래,²⁾ 이 장르는 타임루프, 타임슬립, 타임워프, 타임리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해왔다. 예를 들어 시간여행픽션의 고전 〈백 투 더 퓨처〉(로버트 저메키스, 1985, 1989, 1990) 시리즈는 주인공이 장치를 타고 과거, 미래, 서부시대의 특정 시점으로 이동

1) 2026년 4월 25일 확인한 숫자로 2개월 전에 비해 각각 300편, 100편 가량 증가하여 회귀물의 인기는 현재진행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 A. Pilkington, *Science Fiction and Futurism: Their Terms and Ideas*, McFarland, 2017, p.137.

한다는 점에서 타임슬립의 성격을 띠며, 〈사랑의 블랙홀 (해롤드 래미스, 1993)〉은 반복되는 하루에 갇힌 인물의 성장을 다룬다는 점에서 타임루프의 형식을 취한다. 드라마 〈시그널 (tvN, 2016)〉은 무전기라는 매개체로 서로 다른 시간대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타임워프물로 분류할 수 있다.

회귀물은 이 중 타임슬립의 형식을 공유하면서도 고전 서사와는 뚜렷한 차별점을 지니는데, 고전적 타임슬립물이 낯선 시공간에 던져진 주인공의 고군분투에 집중한다면, 회귀물은 이미 경험한 익숙한 세계의 재구성을 그린다. 즉 타임슬립의 주인공이 정보의 결핍을 겪는 이방인이라면, 회귀물의 주인공은 정보의 우위를 점한 내부자이다. 이를테면 1955년으로 흘러 들어간 소년의 소동극을 그린 〈백 투 더 퓨처 (1985)〉에서 주인공 마티는 당시의 음료 종류를 몰라 주문조차 애를 먹고, 그의 전위적인 기타 연주는 30년 전 관객에게 외면당하고, 부모님을 연결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임무 또한 당대의 감수성을 몰라 좌충우돌한다. 반면, 20년 전 신입사원으로 회귀한 CEO의 이야기인 〈상남자 (김태궁, 2019-2021)〉에서 주인공 한유현은 제품의 성패와 기술의 도태를 정확히 꿰뚫고 있으며, 축적된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노련한 정치력을 발휘하며 승승장구를 거듭한다. 다시 말해, 고전적 타임슬립물이 낯선 세계에 기투된 인물의 미지의 모험을 그린다면, 현재의 회귀물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 욕망을 실현하는 성공적 시뮬레이션의 양상을 띤다.

그렇다면 왜 특수한 형태의 시간 여행물이 최근 웹 플랫폼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일까? 회귀물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우선 웹소설의 독서 혹은 소비 방식과 서사 구조를 연관 짓는다. 회당 결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짧게는 100화 길게는 500화 이상으로 구성되는 웹소설은 매회 결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한화의 진행 안에서도 즉각적인 만족과 쾌감을 전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임무

를 자각하고 잠재력을 각성하기까지 긴 분량을 할애하는 전통적 영웅 서사 구조는 웹소설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³⁾ 이에 반해 인생 2회차를 맞이하는 회귀물의 주인공은 시간과 경험을 거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먼치킨’⁴⁾ 주인공으로 등장하므로 소위 고구마 구간을 최소화하고 사이다 구간의 쾌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⁵⁾ 회귀물 작법서에서도 회귀 이전의 실패한 암울한 삶에 대해서는 3화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⁶⁾

또 다른 한 축은 회귀물을 현대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대중의 인식과 욕망을 반영한 대리만족의 서사로 읽는다. 경제적 계급화가 확고해진 한국 사회 현실에서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인식이 깔려 있고 독자들은 미래지식을 바탕으로 성공 신화를 쓰는 주인공을 보면서 세속적인 쾌감을 느낀다는 것이다.⁷⁾ 이는 무한경쟁의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자기 자신일 뿐이라는 자조에 바탕을 둔 판타지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⁸⁾ 박지희는 주인공이 회귀하면서 욕망이 능력

3) 음성원·장용조, 「웹소설에서의 회귀·환생 모티브 활용 연구: Vogler의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제25호,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22, 39-72쪽.

4) 먼치킨(Munchkin)은 롤플레이게임(Tabletop Role Playing Game)에서 게임을 균형을 깨뜨릴 만큼 강력한 캐릭터를 일컫는 용어로 시작되었으며, 웹소설과 같은 대중문화 작품에서는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지닌 일종의 ‘사기’ 캐릭터를 의미한다.

5) 최지운, 「TV드라마 속 회귀물의 함의 연구: 〈어게인 마이 라이프〉와 〈재벌집 막내아들〉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68호, 인문콘텐츠학회, 2023, 140쪽.

6) 죽기 전의 주인공의 암울한 과거사에는 독자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 정보를 간결하게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다. 진문, 『밀리언 뷰 웹소설 비밀코드』, 블랙피쉬, 2021.

7) 김나은, 「현대 판타지 웹소설 흥행요인 분석: 『재벌집 막내아들』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제60호,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24, 45-61쪽.

8) 안상원, 「한국 웹소설의 회귀 모티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0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8, 279-307쪽.

으로 화하여, 그 능력을 바탕으로 돈에 대한 강박증적 욕망을 채운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거울로 읽는다.⁹⁾

본고는 후자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맥락에서 그 논의를 확대하고자 산경의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2017-2018)〉을 분석한다. 이 작품은 문피아 연재 당시 압도적 인기를 구가하였으며¹⁰⁾ 현재까지 연재 플랫폼(문피아, 네이버시리즈, 카카오페이지)의 누적 조회수 총합이 1억 5천만 회에 이르는 기념비적 텍스트다.¹¹⁾ 2022년 웹툰화 되어 한국뿐 아니라 7개 언어로 번역되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인기를 구가하였고, 같은 해 JTBC에서 드라마로 방영되어 최고 시청률 26.9%를 기록하며 사회적 신드롬을 일으키며 그 해 최고 인기 드라마가 되었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재벌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 만큼, 기존 연구들은 주로 주인공의 회귀 이후 경제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한 행보가 한국 사회의 어떤 욕망과 역사 인식을 반영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시성은 이 작품을 운의 요소를 배제한 능력주의가 도덕적 기준으로 작동하는 서사로 읽으며 성과사회의 초상으로 분석하였고,¹²⁾ 전철희는 재벌 세습 체제를 비판하면서도 해외 금융자본을 통해 재벌 내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결말에 머문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상상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¹³⁾ 또한 서희원은 소설의 출발점이 한국 사회의 민주

9) 박지희, 「한국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에 나타난 신자유주의 시대 현실 재현 양상 연구」, 『인문콘텐츠』 제66호, 인문콘텐츠학회, 2022, 151-173쪽.

10) 연재 기간 동안 내내 문피아의 투데이베스트를 기록하였다.

11) 2025년 4월 17일 기준 카카오페이지 6600만회, 네이버시리즈 5400만회, 문피아 4000만회 조회를 기록 중이다.

12) 이시성,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이 보여주는 성과주체의 현대적 판타지」, 『오늘의 문예비평』 제127호, 오늘의 문예비평, 2023, 241-258쪽.

13) 전철희, 「『재벌집 막내아들』의 정치적 무의식」, 『동아시아문화연구』 제92호,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23, 145-165쪽.

화가 본격화되는 1987년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재벌이라는 경제 권력이 신자유주의를 매개로 통치 권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읽어낸 바 있다.¹⁴⁾

이처럼 기존 연구들이 〈재벌집 막내아들〉의 개별 서사 요소를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적 맥락과 연결하여 해석해 왔다면, 본 연구는 한 걸음 물러나 이 작품이 회귀물이라는 장르적 틀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서사를 조직하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플롯을 추동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실존을 끊임없이 수치화하고 정량화하는 서사적 메커니즘에 관심을 둔다.

삶을 규율하는 수치는 〈재벌집 막내아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다수의 회귀물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장르적 관습이다. 〈상남자〉의 경우 회귀한 주인공이 내리는 결정의 행보가 분기별 영업이익, 시장 점유율 등의 구체적인 데이터로 환산되어 제시되며, 〈드라마의 제왕 (이창모, 2019)〉에서는 회귀한 드라마 PD의 성공과 방송사 간의 권력 투쟁이 철저히 시청률, 광고 매출, 제작비 대비 해외 판권 수출액 등의 수치로 치환된다.

이 작품들이 성과를 정량화하는 방식으로 현실의 경제 지표를 활용했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 일부 회귀물들은 성공 확률이나 능력치를 수치로 보여주는 게임적 장치인 상태창을 결합시키기도 한다.¹⁵⁾ 예컨대 〈월스트리트 천재의 시한부 투자법 (글망쟁이, 2024-현재)〉에서는 회귀암으로 사망한 뒤 10년 전으로 회귀한 펀드매니저 하시현의 눈앞에 자신의 사망 예정일과

14) 서희원, 「민주화 이후의 자본주의, '축적하라! 1987' -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9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3, 345-379쪽.

15) 또 다른 예로 〈회귀자 사용 설명서 (홍수저, 2017~2019)〉의 세계는 철저한 능력주의 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인물은 재능과 잠재력을 수치와 등급으로 부여받는다. 지력, 근력, 민첩성, 체력은 물론 행운까지 숫자로 환원되며, 주인공 이기영은 이러한 능력치를 '상태창'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그는 자신의 부족한 능력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성향과 역량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최적으로 조합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해나간다.

남은 생존 일수, 생존 확률이 숫자로 표기된다. 그는 이 숫자가 0이 되기 전에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500억 달러를 마련해야 한다. 이 작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투자 수익률과 불가역적으로 감소하는 생존 일수를 병치함으로써 서사적 긴장감을 극대화한다. 운명은 더 이상 우연과 불확실성의 영역이 아니라 측정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수치들의 집합으로 제시된다.

본고는 이러한 정량화의 서사 방식이 단순한 장르적 장치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깊숙이 침투한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내면화한 결과로 보고, 이 수치화가 회귀물의 2회차 인생과 맞물리는 지점에 주목한다. 즉, 신자유주의가 개인의 삶을 규율하는 지배적 원칙으로 작동할 때, 이미 아는 삶을 복기하는 회귀물의 플롯을 시대를 반영한 문법으로 읽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내는 주체의 성격을 먼저 짚어본 후 니콜라스 로즈와 피터 밀러의 신자유주의 통치성 논의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주체가 스스로의 실존을 정량화된 수치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고찰한다. 이어 엘레나 에스포지토의 이론을 참조하여 이 수치에 대한 강박이 어떻게 회귀의 욕망으로 전이되는지,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 주체성이 회귀물의 시간성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회귀물이 신자유주의 주체의 강박적 욕망과 근원적 불안을 내면화한 상상력의 산물임을 밝히고자 한다.

2. 신자유주의 기업가적 자아와 수치화된 삶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 무역, 규제 완화, 세계화, 그리고 정부 개입 축소를 강조하는 정치 이념이나 경제 정책으로 정의된다. 미셸 푸코는 그의 강연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통해 신자유주의가 이러한 경제와 정

치의 물적 영역을 넘어 인간의 행동과 영혼을 다스리는 특정한 통치 방식 (governmental rationality)이 되고 있음을 주장한다.¹⁶⁾ 고전적 자유주의 체제하에서 경제인(homo economicus)이 시장에서 상품을 교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된 주체였다면, 신자유주의적 경제인은 경쟁, 효율, 수익 창출과 같은 시장의 원리를 내면화하여 삶의 실존적 원칙으로 삼는 존재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인에게 더 이상 시장은 외부의 장소가 아니다. 경제적 공간과 비경제적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교육, 훈련, 심지어 휴식과 건강관리조차도 투자로 치환되어 24시간 내내 시장의 원리 속에 머물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푸코는 신자유주의적 인간상을 “스스로가 자본이며, 생산자이며, 소유물의 원천인 자기 자신의 기업가(entrepreneur of oneself)”로 규정한다.¹⁷⁾ 이 기업가적 자아는 단순한 시장 참여자를 넘어, 자기 자신 전체를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고 이를 경영하려 하는 주체이다. 개인이 하나의 주식회사로 치환되므로 자신이 가진 모든 속성은 이제 시장 내에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관리되어야 할 자산, 즉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다름 아니다.

게리 베커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개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구체화한다.¹⁸⁾ 그는 교육과 훈련뿐 아니라 결혼과 출산 같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조차 현재의 비용을 투자해 미래의 기대 수익을 기대하는 합리적 투자 결정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를테면 개인은 교육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과 공부 대신 일을 했을 때 벌었을 임금,

16) M. Foucault, Arnold I. Davidson, Graham Burchell, *The Birth of Biopolitics: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8-1979*, Palgrave Macmillan UK, 2008.

17) 위의 책, p.226.

18) G. Becker,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즉 기회비용을 계산한다. 이 비용의 합보다 교육 후 얻게 될 생애 소득의 증가분이 크다고 판단될 때 교육에 투자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은 단순히 지적 성취의 과정이 아니라, 노동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한 자본 확충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업가적 자아가 자신을 경영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무엇인가? 피터 밀러와 니콜라스 로즈는 신자유주의적 자기경영의 핵심 전략이자, 그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토대는 인간의 삶을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만드는 수치화에 있다고 설명한다.¹⁹⁾ 계산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는 것은 통치할 수 없다. 그렇기에 복잡하고 주관적인 인간의 실존을 수치화된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은 단순히 현상을 기록하는 행위를 넘어 삶에서 통치 가능한 영역을 만들어내는 기술인 것이다. 숫자로 표시되어야만 비로소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에 더 투자해야 하는지, 또 얼마나 성취했는지 경영적 판단이 가능해지고 그 책임 또한 명확해진다. 밀러는 이를 “계산하는 주체 (calculating self)”의 탄생이라고 명명한다.²⁰⁾ 이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하나의 회계장부처럼 관리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감사(audit)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미셸 푸코와 게리 베커가 신자유주의를 논했던 1960~70년대는 이 새로운 통치 합리성이 학문적 담론을 넘어 현실의 통치 전략으로 급진적으로 확장되던 시기였다. 이후 신자유주의는 각 국가의 정치·경제 정책에 따라 부침을 겪어왔으나, 윌리엄 브뤼클링은 신자유주의적 급진주의가 정책적으로는 완화되었을지언정 '기업가적 자아'라는 사회적 형상은 결코 약

19) P. Miller & N. Rose, *Governing Economic Life, Economy and Society*, Vol. 9, No. 1, 1990, pp.1-31.

20) P. Miller, *Governing by numbers: Why calculative practices matter*, *Social Research*, Vol. 68, 2001, p.380.

화된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²¹⁾

오늘날 서열화된 경쟁과 자기계발에 몰두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은 개인의 내면 깊숙이 침투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 중임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이수율, 사교육 참여율, 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은 모두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²²⁾ 수험생들은 깨어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에 투여하고, 학부모는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본과 정보, 에너지를 총동원한다. 일타강사의 강의를 등록하러 학원가에 늘어선 긴 줄이나, 정보력을 바탕으로 사교육 시장 내 권력을 형성하는 ‘돼지엄마’ 현상은 이러한 열기가 빚어낸 적나라한 한 단면이다. 이 치열한 여정의 종착지는 견고하게 서열화된 대학 구조 속에서 한 계단이라도 더 높은 단계에 진입하는 데에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개별적 역량과 잠재력은 철저히 숫자로 환산되어 관리된다. 고교 3년간의 노력은 9등급제의 내신 등급으로 구분되고, 대학 수능능력시험 결과 역시 표준점수와 백분위라는 수치로 치환된다. 학생들은 자신에서 가장 유리한 조합을 찾기 위해 복잡한 대학별 환산식을 분석하고, 학원 플랫폼의 모의 지원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수점 단위의 점수 차이까지 따져가며 최적의 지원을 위해 사력을 다한다.

아만다 리플리가 ‘압력밥솥’이라 묘사한 한국의 숨 막히는 교육열은 학벌이 생애 전반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는 견고한 믿음에 기반한다.²³⁾ 게리 베커의 이론처럼 대학 입시는 당장의 비용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생애 소득과 사회적 자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수

21) 올리히 브뢰클링, 『기업가적 자아』, 김주호 역, 한울아카데미, 2014, 11쪽.

22) 〈한국, 사교육 참여율 OECD 1위…학교 간 격차도 가장 커〉, 『교육플러스』, 2025.06.13.,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66>. (접속일: 2026.2.23.)

23) 아만다 리플리, 『무엇이 이 나라 학생들을 똑똑하게 만드는가』, 김희정 역, 부키, 2014.

익을 높은 인적 자본 투자로 간주되는 셈이다.²⁴⁾

하지만 대학 입학은 인적 자본 형성의 종착지가 아니라 자기경영의 본격적 서막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대학은 발달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 명명했던 심리적 유예기, 즉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자유로운 탐색과 실수의 여유를 누리던 시공간에서²⁵⁾ 변모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거쳐가는 효율적인 정거장이 되어가고 있다. 학생들은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신의 삶을 스펙이라는 데이터로 관리하고 포트폴리오로 재구성한다. 주관적인 개인의 역량을 학점, 어학 점수, 자격증 개수 등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되는 공인된 숫자로 바꾸는 시간인 것이다.

“오늘도 자기소개를 쓴다. 토익, 봉사활동, 인턴십, 공모전, 학점. 그 외에도 평범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배낭 여행 이야기도 틈틈이 적는다. 모든 것은 대기업에 가기 위해 해온 것이니까.”²⁶⁾ 한 대학생이 묘사한 졸업반의 하루는 이제 대학가의 일상적 풍경이다. 청년 세대의 삶을 연구해온 사회학자 오찬호는 대학생들이 기업이 원하는 표준적 인재의 기준에 맞춰 인생을 재편함에 따라 ‘경영학’이 대학에서 하나의 전공이 아니라 보편적인 학풍이 되었다고 지적한다.²⁷⁾

과거 대학생들이 예민한 정치적 감수성과 공동체적 행동력을 바탕으로 ‘386세대’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했다면, 현재의 대학생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개인의 생존을 위한 자격 증명에 몰두하는 ‘스펙 세대’로 호명된다.²⁸⁾ 386세대에게 20대가 민주화의 열망을 바탕으로 한 정치 참여의 시

24) 이러한 맥락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학문과 진리의 배움의 과정이 아니라 초기 자본을 형성하여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받으려는 1차 편당의 성격을 띠다고 볼 수 있다.

25) 에릭 에릭슨, 『정체성: 청소년과 위기』, 윤초희·정현천 역, 교육과학사, 2022.

26) 엄기호, 『이것은 왜 청년이 아니란 말인가』, 푸른 숲, 2010, 145쪽.

27) 오찬호,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개마고원, 2013, 179-180쪽.

기였다면, 스펙 세대에게 젊음은 내 옆의 경쟁자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야 하는 각자도생의 시기이다. 모두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 스펙을 쌓아야 제자리라도 지킬 수 있다. 연애, 결혼부터 인간관계와 꿈까지 포기해야 해서 N포 세대²⁹⁾라 불리는 신자유주의 시대 청년들에게 이상과 낭만, 정의와 연대를 우선할 여유는 없다.

입사 이후에도 주체는 시장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오히려 더욱 정교한 수치화의 망 속으로 편입된다. 조직은 MBO(목표관리)와 OKR(핵심결과지표) 같은 관리 도구를 통해 개인의 모든 능력을 정량적으로 환산한다. 이는 서동진이 지적하듯 “일하는 주체의 내면적인 삶을 평가, 측정,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구성”해나가는 과정이다.³⁰⁾ 연봉 고과와 승진이 라는 보상, 그리고 언제든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은 노동자로 하여금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만들어 끊임없이 자기경영에 매진하게 한다.

신자유주의 주의 자기경영은 결코 종착지에 닿지 않을 미완의 프로젝트이다. 최근 유행하는 갓생(God-생) 루틴,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챌린지, 수면테크 등은 퇴근 후의 휴식조차 시장의 긴장감 속에서 통제와 성취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현대인의 강박을 여실히 드러낸다. 하루를 분단위로 쪼개어 운동, 독서, 외국어 공부 등 소소한 계획을 실행하고, 이를

28) H. Cho, “The Spec Generation Who Can’t Say ‘No’: Overeducated and Underemployed Youth in Contemporary South Korea.” *East Asia Cultures Critique*, Vol. 23, No. 3, 2015, pp.437-462.

29) N포 세대는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 등 삶의 많은 가치를 유예하거나 포기하는 한국의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로 2011년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의 기획 시리즈 〈복지국가를 만든 사람들〉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로, 이후에는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추가로 포기하는 5포 세대, 더 나아가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7포 세대로 확장되어 지칭되어 왔다.

30) 서동진, 『자유 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돌베개, 2009, 234쪽.

앱이나 소셜미디어에 기록하고 인증하면서 자신의 성취를 수치로 확인한다. 반복 속에 루틴을 정교하게 다듬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공백, 즉 비효율의 최소화를 향해 나아간다. 결국 신자유주의 주체에게 삶이란 끊임없는 관리와 개조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들의 실존은 데이터로 환산되어 증명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3. 〈재벌집 막내아들〉과 신자유주의 통치성

〈재벌집 막내아들〉은 회귀를 통해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기업가적 자아의 탄생과 수치화된 삶의 여정을 그려내고 있다. 회귀물의 정석적 작법에 따라 총 327화 중 초반 3화에만 1회차 인생을 그려내는데,³¹⁾ 주인공 윤현우는 그의 첫번째 인생에서 신자유주의적 주체와는 거리가 먼 인물로 제시된다. 지방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내던 그는 한 지방대에 들어가게 된다. 소설은 그가 거주하는 지역의 구체적 지명을 제시하는 대신 '지방'이라는 보통명사를 사용하며 그가 서울에 진입하지 못한 주변부 인물임을 강조한다. 윤현우는 학벌로 인해 뒤쳐진 거리를 따라잡기 위해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려 애쓰기보다 상황에 순응하는 길을 택한다. 그는 그저 근방 어디에선가 직장을 구해 평범하게 사는 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려니 여긴다.

하지만 공모전을 통해 운 좋게 재벌 기업 순양그룹에 입사하게 되고 더구나 그룹의 컨트롤 타워로 불리는 미래전략기획본부로 발령받는다. 이 꿈 같은 보직이 알고 보니 회장 일가의 온갖 뒷일을 처리하는 모멸적인 자리임이

31) 진문, 앞의 책.

드러나지만, 그는 묵묵히 일하며 언젠가 본부장급으로 승진하기를 꿈꾼다. 스스로 순양 재벌 일가의 며슴이라고 칭하면서도, 자신의 성실과 의리, 참을성이 그를 “머슴에서 집사로 승격”시켜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냉혹한 자본의 원리 앞에 현우는 한낱 소모품에 불과했고, 그는 재벌 일가의 비리를 대신 뒤집어쓴 채 죽임을 당한다. 그는 자신의 삶의 끝에서 “13년을 개같이 일하며 바친 충성”³²⁾이 결국 물거품임을 깨닫는다. 니콜라스 로즈의 용어로 말하자면 그는 죽음의 순간 그는 마침내 객관적으로 자신의 삶을 감사(audit)하고, 실패의 원인이 신의와 충성이라는 추상적 가치를 믿었던 자신의 막연한 감상주의에 있었음을 깨닫는다.

순양그룹의 손자 진도준으로 태어난³³⁾ 그는 새로운 인생에서 낭만은 폐기하고 성과와 효율 중심의 인적자본으로 2회차 인생을 철두철미하게 재편한다. 순양그룹의 주인이 되겠다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세가지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첫번째는 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인 할아버지 진양철에게 후계자 후보로 인정받는 것, 두번째는 회사를 경영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 셋째는 자신과 함께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 회귀 후 첫 번째 에피소드는 열 살 도준의 가족이 진양철 회장을 만나러 가는 날의 아침으로 시작한다. 소설은 도준은 버릇없이 구는 열두 살 형 상준을 무감하게 제압한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놈의 뒤로 다가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찼다....바

32) 산경, 〈재벌집 막내아들〉, 네이버시리즈, 2017-2018. 3화. 윤현우는 자신의 순양에서의 삶을 다음의 말로 마무리한다: “13년을 개같이 일하며 충성을 다했는데 이렇게 버려지다니! 그것도 죽음으로”; 이후 주요 분석 대상인 이 웹소설의 인용은 내용이 재된 화로 표기할 것이다.

33) 윤현우가 과거로 돌아가지만 자신이 아닌 진도준이라는 아이의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회귀와 병의가 합쳐진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닥에 나가떨어진 놈의 명치를 지그시 한번 밟아주니 입도 벅긔하지 못한 채
바둥거렸다. 나는 형의 머리채를 잡고 욕실로 끌고 들어갔다.³⁴⁾

도준에게 형은 일종의 리스크이다. 상준이 할아버지 앞에서 제멋대로 행동할 경우 동생인 자신마저 할아버지의 눈 밖에 날 위험이 있고 그래서 도준은 전생에서 별다른 원한이 없었던 상준을 굴복시켜 앞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이다. 느닷없이 나타나는 이 폭력적인 에피소드는 도준이 우유부단한 휴머니트스에서 벗어나 냉철한 전략가로 변모했음을 선언한다.

할아버지를 독대하게 된 도준은 1987년 정치적 격변 속에서 정세를 읽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진회장의 참모 대신 시의적절한 조언을 하면서 신망을 얻는데 성공한다. 이후 그는 진회장이 내는 난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가면서 후계자 후보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 그러나 후계경쟁구도에서 막내 손자 도준은 서열상으로나 평판상으로나 레이스의 가장 후미에 있다. 장남 진영기는 선두에서 이미 3세로의 승계 계획까지 세우고 있고, 바로 뒤의 차남 진동기와 장녀 진서윤은 계열사를 손에 쥐고 호시탐탐 역전을 노린다. 도준의 아버지 진윤기는 막내인 데다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영화계에 뛰어들어 진회장의 눈 밖에 난 지 오래다. 완전히 경영에서 배제된 사남의 막내 도준이 회장직을 차지하는 것은 1회차 인생의 윤현우 대리가 본부장으로 승진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목표처럼 보인다.

하지만 도준은 철두철미한 포트폴리오 설계와 효율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이 아득한 레이스를 돌파해 나간다. 그는 종갓돈 마련을 위해 진회장과 전 과목 시험 '100점'을 일종의 담보로 거래를 제안하고, 그 보상으로 장차 분당 신도시가 될 시골 땅을 얻어낸다. 곧 개발에 들어간 부지를 현금화한 후 이를 다시 미국 주식과 흥행이 보장된 영화에 재투자하며 자

34) 4화.

본을 눈덩이처럼 불려 나간다.

조력자를 구성하는 방식 또한 철저히 기능적이다. 인물의 선택은 감정적 유대가 아닌 온전한 역량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계산이 명확한 자산 운용사 오세현을 대리인으로 세우고, 검증된 실력자 이학재에게 회사의 운영을 맡기고, 경제 흐름을 예리하게 읽어내는 레이첼에게 미국 내 자산 운용사를 맡기며, 냉혹한 해결사 우병준에게 뒷일을 처리하게 한다. 이 인적망은 각자의 목적이 교차하는 거래의 장이기에, 어떤 잉여의 감정이나 소모적인 갈등이 끼어들 틈이 없다. 신뢰와 연대조차 철저히 비즈니스적 파트너십 위에 구축되며, 이는 여자친구이자 배우자가 되는 서민영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은 공식 커플을 유지하는 십년 동안 데이트나 로맨스에 어떤 시간도 비용도 들이지 않는다. 이들의 연애는 정서적 교감보다 가문의 기대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관리된 관계에 가깝다. 그리고 어느 날 연인 관계는 반나절의 프로포즈와 혼인신고로 극히 효율적으로 결혼으로 이행한다.

결국 진도준은 새로운 인생을 얻은 것을 넘어, 완벽한 신자유주의적 주체로 거듭난 셈이다. 그는 어떤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 10대 시절은 성인이 되어 직접 경영에 참여하기 전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종의 대기 시간인 셈이지만 이 시간 역시 비생산적인 상태로 두지 않는다. 대신 서울대 법대 진학이라는 상징적 자본을 획득하는 기회로 삼는다. 끊임없이 주식 투자를 하고 대리인 오세현을 통해 해외 계약을 성사시키고 아버지를 성공한 영화인으로 만들기 위해 판을 짜면서도, 틈틈이 대입 시험을 준비한다. 일타 과외 교사들에게도 “효율적으로 가르치라”고 잔소리를 하는 도준의 모습은 '갓생' 열풍의 픽션적 변주라 할 만하다.

도준의 쉴 틈 없는 레이스는 회계의 언어로 표현된다. 도준이 회귀 후 처음 진회장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의 압도감을 소설은 다음 다섯 줄로 풀어

낸다.

대지면적 1100평
네 채의 건물
지상 2층, 지하 2층
주차대수 50대
담장둘레 380미터의 거대한 성³⁵⁾

여느 소설이라면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그 장엄함을 묘사해야 할 순간이 숫자로 환산되는 것이다. 공간의 미학적 가치는 사라지고, 오직 환금 가능한 규격만이 남는다. 진도준이 집을 보며 떠올리는 이 수치들은 그가 세상을 데이터로 파악하고 있음을, 그는 감동하는 주체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를 산출하는 감정평가사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물에 대한 관점 역시 마찬가지이다. 진양철이 도준에게 거금을 증여하자 장남 진영기는 그 의미를 곱씹는다.

도준이가 지금 몇 살이지? 그런 애에게 140억을 줬다. 이걸 단순한 증여가 아냐. 열두 살 꼬맹이의 가치를 무려 140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만약 남은 땅도 처분하고 도준이에게 주신다면 그놈 가치는 200억이 넘는다고! ³⁶⁾

큰아버지인 진영기는 조카에게 증여된 자본의 크기를 통해 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설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개인은 더 이상 고유한 인격적 주체가 아니라 시장에서 돈으로 환산되고 거래될 수 있는

35) 5화.

36) 21화.

자산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각각 진양철과 진도준의 조력자인 이학재와 오세현의 대화 또한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도준을 대등한 사업 파트너로 생각하는 오세현과, 그가 미성년인 손자를 이용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이학재는 첫 만남부터 팽팽하게 대립한다. 두 사람의 기싸움은 몸값 논쟁으로 옮겨가고, 이학재는 오세현의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로 스스로 몸값을 매겨 보라고 요구한다. 오세현은 당황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자금을 바탕으로 200억이라는 계산값을 내어놓는다.³⁷⁾

이 같은 대화 후 매번 따라오는 것은 몸값의 환산이다. 오세현은 “한국에서 아파트 200채를 자신의 몸값이라고 주장한다면 미친놈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하다며 자신의 가치를 부동산 가치와 비교하고, 앞서 할아버지로부터 받게 된 토지보상금 200억에 대해 도준은 은마아파트 200채를 살 수 있는 돈이며 “대졸 신입사원 사천명의 연봉에 육박”한다며 뿌듯해한다. 서울대 법대에 합격한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도준은 과목별로 일대일 과외를 했다고 밝히며 “쓴 돈만 해도 기자님들 10년치 연봉”이라고 덧붙인다. 인물의 가치가 아파트 수나 노동자의 연봉으로 환산되는 서사 방식은, 로즈가 주장한 것처럼 신자유주의가 인간의 실존을 가감승제가 가능한 장부상의 수치로 포섭했음을 보여준다.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서사가 진행되면서 도준이 경영하는 수치는 점점 커지는데 결말부에서 도준의 재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소설은 구두점을 찍듯 그가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되었음을 확인시킨다. 미국 내 도준의 자산을 관리하던 레이첼은 도준에게 560억 달러 계좌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며 축하 멘트를 잊지 않는다.

37) 30화. 이학재는 오세현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자신이 생각하는 몸값의 두 배를 주고 사는 게 우리 순양이요. 당신에게는 세 배를 주지. 얼마요? 당신이 매긴 당신의 가격이...?”

“축하해, 세계 최고 부자가 된 걸!”³⁸⁾

소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도준의 재산은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에 버금가는” 짓을 넘어 “지금 1위의 두 배 정도”라고 비교하고 “한 나라의 3년 예산을 현찰로 쥐고 있는” 셈이라고 추가 계산까지 마쳐준다.³⁹⁾ 그는 이 엄청난 자산과 구축해 온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순양그룹의 회장직에 오르며 대한민국 경제 권력 서열의 1위를 차지한다.

가치의 질적 차이는 사라지고 오직 양적인 서열만 남긴 상태에서 펼쳐지는 인적 자산 레이스에서 진도준은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다. 신의와 충성을 믿었던 1회차 인생의 처절한 실패는 그를 냉철한 기업가적 주체로 거듭나게 했고, 그는 자신의 다시 주어진 삶을 철저한 효율과 수치의 원리로 경영하며 자신의 목표를 100% 달성한다.

4. 회귀 서사와 미래 통치의 판타지

신자유주의의 원리가 내면화된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이를 투영하는 픽션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삶은 정량화되고 주체의 머릿속 계산기는 쉬 없이 돌아간다. 플랫폼 노동자의 별점이 생계의 줄을 쥐고, 연구자의 인용 지수가 학술적 가치를 판별하며, 소셜미디어의 숫자가 개인의 영향력을 규정하는 현실은 소셜 속 진도준이 획득한 자산 규모와 서열의 위치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모습과 궤를 같이한다. 기업가적 자아의 자기경영에서 이토록 수치화가 절대적인 원리로 작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피터

38) 원문은 “Congratulation! World’s Richest Person!”이었으나 문법에 오류가 있고 또한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번역하여 인용했다.

39) 각각 320화, 322화.

밀리는 이러한 수치화의 이면에는 “미래를 설계하려는 욕망”이 있다고 분석한다.⁴⁰⁾ 계산의 쓸모는 단지 현재의 경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미래를 통제 가능한 현재의 영역으로 끌어오려는 주체의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삼성전자 직원이 올린 의대 진학 고민이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⁴¹⁾ 작성자는 의대 수시전형에 합격했다며 27세에 신입학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조언을 구했다. 이 글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져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대다수는 의대 진학을 적극 권하는 내용이었다. 네티즌들은 삼성전자가 최고의 대기업이긴 하지만, 의사의 독보적인 직업 안정성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30대 중후반에 전문의가 되더라도 삼성전자에 계속 다니는 것보다 돈을 버는 기간이 길다는 것, 40대부터 시작되는 대기업의 구조조정 불안과 임원 승진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년 제한이 없는 의사 직업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결국 많은 이들이 선포하는 대기업의 자리를 포기하더라도 안정적인 의대 진학 선택이 훨씬 낫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러한 반응은 대한민국에서 의대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고소득과 사회적 인정 때문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강력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함임을 시사한다. 즉, 의대가 현재 예상하는 삶의 궤적과 실제의 미래를 가장 유사하게 일치시켜 줄 것이라 믿기에, 수많은 젊은이가 그토록 의대 입학에 매진하는 것이다.

엘레나 에스포지토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현재에서 예측하고 관리하는 행위가 지금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

40) P. Miller, 앞의 글, p.384.

41) 〈26살에 의대 붙었는데 가야 할까요? 삼성전자 직원 고민글 화제〉, 『위키트리』, 2025.12.17.,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02210>. (접속일: 2026.3.10.)

는 가장 강력한 작동 원리가 되는 사회로 제시한다.⁴²⁾ 즉 오늘을 산다는 것은 곧 내일의 리스크를 계산하고 관리하는 것과 동의어가 되는 것이다. 그녀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관념을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현재적 미래(present future)”로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상상하고 계산하고 기대하는 미래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적 현재(future present)”로 실제로 일어나 닥쳐올 미래이다.⁴³⁾ 그녀는 금융이 단순한 자본의 이동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는 시간적 차원의 활동으로 보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곧 현재적 미래가 곧 거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한다. 현시점 우리 사회에서 의대 입학은 현재 내린 예측과 실제 닥칠 미래를 일치시키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거래 방식으로 합의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주체의 수치를 통한 끊임없는 자기경영은 현재적 미래와 미래적 현재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래는 본질적으로 미지의 영역이다.⁴⁴⁾ 지난 겨울 공인회계사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벌인 집단 시위는 불확실하고 통제 불가능한 미래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다.⁴⁵⁾ 시험에 합격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회계사들이 정부의 선발 인원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다. 회계사가 되면 안정적인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것은 오랜 사회적 통념이었다. 그랬기에

42) E. Esposito, *The Future of Futures: The Time of Money in Financing and Society*, Edward Elgar Publishing, 2011. 예를 들어, 금융 시장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수익이나 리스크를 파생상품 등의 형태로 현재에 끌어와 사고 파는데, 이는 미래를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미래 가치를 매겨 현재의 부를 생성하는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원리이다.

43) 앞의 책, pp.126-128.

44) 엘레나 에스포지토 역시 현재적 미래를 관리하려고 애쓸수록, 미래적 현재는 더 예측 불가능해짐을 지적한다.

45) <“회계사 합격했는데 3년째 백수” 회계사 500여명 시위… 무슨 일?>, 『문화일보』, 2025.10.14., <https://www.munhwa.com/article/11539210>. (접속일: 2026.03.10.)

이들은 수년 간의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해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폭발적 성장은 신규 회계사 채용을 급격히 감소시켰고 결국 그들은 무력한 구직자가 되어 버렸다. 그들이 합리적 계산이라 믿었던 선택은 결국 변화무쌍한 미래 앞에 리스크로 돌아온 것이다.

이렇듯 아무리 미래를 관리하려 해도 현재적 미래와 미래적 현재는 끊임없이 미끄러진다. 올리히 벡이 통찰했듯, 현대 사회에서 위험은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시스템에 내재한 상시적 조건이다.⁴⁶⁾ 리스크는 늘 도처에 도사리고 있으며,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반드시 기대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통치성 하에서 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귀결된다. 푸코는 기업가적 자아의 개념을 제시하며, 신자유주의 사회는 개인에게 기업으로서의 자신을 경영할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주는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 또한 전가하는 사회라고 설명한 바 있다.⁴⁷⁾ 국가나 조직의 규율과 강제가 물러난 자리에 주체의 자유가 들어서면서, 현대인은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개인은 경영의 자유를 누리는 대가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며, 여기서 신자유주의적 주체의 만성적인 불안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타임슬립 서사와 구분되는 회귀물의 서사는 신자유주의 주체들이 갈망하는 판타지를 정확히 공략한다. 회귀물의 주인공은 낯선 시공간에 던져져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모험가가 아니다. 그들은 불안을 견디며 리스크와 싸우는 대신, 이미 데이터베이스화된 과거로 돌아가 미래 지식을 무기로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친다. 그들의 여정에는 전략적 갈등과 대립은 존재할지언정, 결과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실존적 위

46) 올리히 벡, 『위험사회』, 홍성태 역, 새물결, 2006.

47) M. Foucault, 앞의 책.

기나 근원적인 불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재벌집 막내아들〉의 주인공의 2회차 인생의 여정을 보자. 진도준이 10대 소년에서 30대의 순양그룹 회장이 되는 서사는 한국의 현대사의 굴곡을 가로지르며 세계 경제의 굽직한 사건들과 마주한다. 종잣돈이 되는 분당의 목장 부지는 신도시 개발이라는 국가적 기획과 맞물려 있고, 여기서 얻게 된 토지보상금은 IT 혁명의 상징인 델(Dell)과 마이크로소프트로 흘러들어가 막대한 자금으로 불어난다. 그는 상장 전 단계에서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된 것이며 이후 구글과 아마존으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며 세계 디지털 기술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올라탄다.

한국 경제를 근간부터 뒤흔든 IMF 외환 위기는 도준에게는 결정적인 도약의 장이 되어 자금난에 시달리는 순양자동차와 아진그룹을 인수하며 순양그룹의 대주주 반열에 오른다. 〈나홀로 집에〉, 〈타이타닉〉 같은 시대를 풍미한 영화 역시 그에게는 결가지 투자 좌표를 제공한다. 2001년 카드 대란을 앞두고 순양카드를 큰아버지에게 매각해 경쟁자를 수렁에 빠뜨리고, 9·11 테러를 앞두고 주가 하락에 배팅해서 독보적인 자산가가 된다. 2002년 월드컵 4강의 환희는 순양자동차의 마케팅 성공 신화로 치환되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서 촉발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그를 마침내 전 세계 최고 부호의 자리에 앉힌다.

누군가에게는 파산과 실직, 심지어 죽음의 문턱이었던 역사의 변곡점이 미래 지식으로 무장한 도준에게는 리스크가 아닌 오직 명확한 투자의 모멘텀이 되는 것이다. 소설에서 당대 최고의 통찰력을 지닌 능력자로 묘사되는 오세현, 이학재, 레이첼조차 도준의 파격적인 행보를 우려하고 때때로 만류하지만, 도준은 위기의 정점에서 진입하고 하락 직전 철수하는 극적인 타점을 반복한다.

도준이 공격적으로 성큼성큼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주변 인물들은

쟁걸음으로 분주하게 오가며 그의 결정이 가져올 가능성과 위험성을 조사한다. 이들은 전문적 식견과 경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실 틈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촘촘하게 예측을 거듭하면서도, 도준의 과감한 행보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준과 오세현의 첫 미국 출장 장면이다. 도준이 분당 부지의 매각 수익금을 델(Dell)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하자 오세현은 즉시 직원들을 소집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다. 그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회의를 거듭하며 잠자리에 들어서까지 자신의 판단을 재확인한다. 이후 도준이 확신이 생겼느냐고 묻자, 오세현은 자신의 일은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며 “의심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답한다.⁴⁸⁾

오세현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현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계산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신자유주의적 리스크 관리자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끊임없는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미래를 보다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스펙과 포트폴리오로 관리하고, 사회적 변화와 시장의 흐름을 읽으며, 현재의 선택을 미래의 성과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기업가적 주체의 이상형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오세현은 언제나 미래 지식으로 무장한 도준보다 한 수 아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현실 세계에서라면 오세현은 신자유주의적 주체가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적 모델이지만, 그의 전문성과 분석 능력은 도준의 회귀 능력 앞에서 필연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계산하려는 예측과 이미 일어난 과거를 데이터베이스로 쥐고 있는 지식 사이에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계산을 비롯듯 찾아오는 역사적 변곡점 앞에서 이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갈린다.

48) 26화.

〈재벌집 막내아들〉의 서사가 IMF 외환위기, 닷컴버블, 카드대란, 2002년 월드컵, 글로벌 금융위기 등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가로지르는 만큼 독자 역시 자연스럽게 도준의 시점에 동화된다. 독자들은 사건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문가들이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변수들을 점검하며 미래를 계산하는 과정을 지켜본다. 이들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석을 거듭하지만, 결코 불안감을 떨치지도 온전한 예측을 해내지도 못한다. 반면 독자들은 이미 주어진 역사적 결말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안을 공유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문가들의 긴장과 동요를 관망하며 자신의 예상대로 서사가 전개되는 인식의 우위를 경험하게 된다.

소설 연재 플랫폼의 댓글에는 독자들의 이러한 독서 경험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다.⁴⁹⁾ 도준이 특정 주식을 매수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마다, 독자들은 그의 선택에 환호하고 앞으로 올릴 수익을 계산한다. 더 나아가 다른 종목도 샀어야 한다거나 이 시점에는 저 기업에도 투자했어야 한다는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훈수를 두는 여유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단순한 독서의 차원을 넘어, 독자 스스로가 미래를 알고 있는 회귀자의 위치와 역량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현실에서 아무리 준비하고 계산해도 해소할 수 없었던 불안과 긴장감을 잠시 유예한 채, 자신의 예상대로 미래가 맞아떨어지는 쾌감을 누리는 것이다.

49) 이틀테면 문피아에 연재된 25화에서 도준이 텔 컴퓨터 주식 투자를 결정하자 독자들은 “텔컴퓨터 굿굿” “텔 ㄷㄷ” 등 아직 그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먼저 환호한다. 또한 “여기서 왕창 벌어서 imf때 달러 들고가면 영웅되지”, 혹은 “텔은 걸프전으로 선물 하기 전에 단기 투자로 하고, 돈 많이 벌면 시스코, 오라클 넘어가고 92년 즈음에 노키아, 94년 이후엔 네트스케이프, 야후, 이베이 또 텔... 90년대 말엔 구글, 쉐컴... 대충 이순서로 넘어가면 될 겁니다” 등의 계획을 세우며 이미 아는 미래를 바탕으로 성공 시나리오를 펼쳐 보인다. <https://novel.munpia.com/69583/page/3/neSrl/1232436/cpage/1/nvView/viewComments/window-mode/1> (접속일: 2026.4.25.)

현실에서 미래는 언제나 예측과 실제 사이의 오차를 내포하며, 그 오차야말로 인간이 직면하는 불안의 근원이다. 그러나 2회차 인생을 살아가는 도준에게 미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펼쳐진 데이터베이스나 다름 없다. 그에게 미래는 불확실한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게임이며 정답을 알고 치르는 시험인 셈이다. 진도준의 회귀한 삶은 에스포지토가 말한 현재적 미래와 미래적 현재를 완벽하게 일치시킨다. 결국 〈재벌집 막내아들〉은 불확실성이 0으로 수렴하는 완벽한 미래 통치의 판타지를 구현하는 것이다.⁵⁰⁾

5. 결론

예측 불가능한 미래 앞에서 상시적 불안을 내면화한 신자유주의 주체에게,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회귀물의 판타지는 강력한 대리만족과 해방감을 선사한다. 그런데 이러한 회귀의 서사를 진정한 해방이며 위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엘레나 에스포지토는 ‘현재적 미래’의 본질은 ‘미래적 현재’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전제로 예측과 상호작용을 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다고 본다. 즉 인간은 미래를 알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 수 없기에 기대하고 선택하며 열린 미래로 나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50) 이렇게 볼 때 드라마가 웹소설과 다른 결말을 보여줬을 때 왜 그렇게 시청자들이 분노했는지 그 이유는 명확해진다. 드라마는 16회에서 진도준이 거둔 완벽한 승리의 드라마를 윤현우의 꿈 혹은 임사 체험 중의 환상으로 결론지으며 현실적인 출구전략을 취했다. 하지만 이것은 관객들이 감정이입한 완벽한 성공의 판타지에 현실의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고, 시청자들은 이 결론을 수용하지 못한 채 15화의 공든 탑을 마지막 한화로 모두 쓰러뜨렸으며 맹비난을 쏟아놓았다.

반면 회귀물 속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주인공은 정해진 최적의 경로를 따라가야 하는 통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해방이라기보다 미래적 현재를 과거의 경험 속에 가두는 가능성과 잠재성의 배제에 가깝다. 결국 아는 삶을 다시 사는 주체란 가장 효율적인 선택만을 강요받는 자유의 역설 상태에 놓인 존재이다.

에른스트 블로흐는 인간의 본질을 아직-아닌(Not-Yet) 상태에서 찾은 바 있다.⁵¹⁾ 그는 인간은 이미 규정된 존재가 아니라 항상 어떤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으며 이 가능성이 바로 희망의 근거가 된다고 설명한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상상이 현재의 한계를 돌파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이론을 빌어 치열한 경쟁에 놓인 현재의 젊은 세대에게 충고의 말을 건넬 수 있을까? 스스로를 경영하고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신자유주의 주체들에게, 무한 경쟁 속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꿈과 사랑마저 유예한 'N포 세대'에게 블로흐의 조언은 공허한 격언으로 들릴지 모른다.

한병철은 현대 사회를 외부의 억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과잉 가능성의 압박이 개인을 스스로 착취하게 만드는 '피로사회'로 진단한다.⁵²⁾ 타자에 의한 강요에는 저항할 수 있지만, 주체가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자기 착취적 구조는 저항의 지점을 찾기 어렵기에 주체는 결국 번아웃과 우울이라는 신경성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회귀물은 자기 경영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도 여전히 불안에 허덕이는 현대인을 위한 심리적 안정제인지 모른다. 결국 미래를 향한 모험을 관리의 영역으로 치환하는 회귀 서사의 열풍은 가능성을 두려움으로 인식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씹쓸한 초상을 보여준다.

51) 에른스트 블로흐, 『희망의 원리』, 박설호 역, 열린책들, 2004.

52) 한병철, 『피로사회』, 김태완 역, 문학과지성사, 2012.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글망쟁이, 〈월스트리트 천재의 시한부 투자법〉, 네이버시리즈, 2024-현재.

김태궁, 〈상남자〉, 네이버시리즈, 2019-2021.

산경, 〈재벌집 막내아들〉, 네이버시리즈, 2017-2018.

이창모, 〈드라마의 제왕〉, 네이버시리즈, 2019.

홍수저, 〈회귀자 사용 설명서〉, 카카오페이지, 2017-2019.

2. 논문과 단행본

김나은, 「현대 판타지 웹소설 흥행요인 분석: 『재벌집 막내아들』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제60호,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24, 45-61쪽.

박지희, 「한국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에 나타난 신자유주의 시대 현실 재현 양상 연구」, 『인문콘텐츠』 제66호, 인문콘텐츠학회, 2022, 151-173쪽.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돌베개, 2009.

서희원, 「민중화 이후의 자본주의, '축적하라! 1987' -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9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3, 345-379쪽.

안상원, 「한국 웹소설의 회귀 모티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0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8, 279-307쪽.

엄기호,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닌란 말인가』, 푸른 숲, 2010.

오찬호,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개마고원, 2013.

음성원·장웅조, 「웹소설에서의 회귀·환생 모티브 활용 연구: Vogler의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제25호,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22, 39-72쪽.

이시성,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이 보여주는 성과주체의 현대적 판타지」, 『오늘의 문예비평』 제127호, 오늘의 문예비평, 2023, 241-258쪽.

전철희, 「『재벌집 막내아들』의 정치적 무의식」, 『동아시아문화연구』 제92호, 한양대

- 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23, 145-165쪽.
- 진문, 『밀리언 뷰 웹소설 비밀코드』, 블랙피쉬, 2021.
- 최지운, 「TV드라마 속 회귀물의 함의 연구: 〈어제인 마이 라이프〉와 〈재벌집 막내아들〉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68호, 인문콘텐츠학회, 2023, 133-150쪽.
- 한병철, 『피로사회』, 김태완 역, 문학과지성사, 2012.
- 아만다 리플리, 『무엇이 이 나라 학생들을 똑똑하게 만드는가』, 김희정 역, 부키, 2014.
- 에른스트 블로흐, 『희망의 원리』, 박철호 역, 열린책들, 2004.
- 에릭 에릭슨, 『정체성: 청소년과 위기』, 윤초희·정현천 역, 교육과학사, 2022.
- 울리히 벡, 『위험사회』, 홍성태 역, 새물결, 2006.
- 울리히 브뢰클링, 『기업가적 자아』, 김주호 역, 한울아카데미, 2014.
- A. Pilkington, *Science Fiction and Futurism: Their Terms and Ideas*, McFarland, 2017.
- E. Esposito, *The Future of Futures: The Time of Money in Financing and Society*, Edward Elgar Publishing, 2011.
- G. Becker,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 H. Cho, "The Spec Generation Who Can't Say 'No': Overeducated and Underemployed Youth in Contemporary South Korea." *East Asia Cultures Critique*, Vol. 23, No. 3, 2015, pp.437-462.
- M. Foucault, Arnold I. Davidson, Graham Burchell, *The Birth of Biopolitics: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8-1979*, Palgrave Macmillan UK, 2008.
- P. Miller & N. Rose, "Governing Economic Life," *Economy and Society*, Vol. 9, No. 1, 1990, pp.1-31.
- P. Miller, "Governing by Numbers: Why Calculative Practices Matter," *Social Research*, Vol. 68, 2001, pp.379-396.

3. 기타자료

문피아, <https://novel.munpia.com/69583/page/3/neSrl/1232436/cpage/1/>

nvView/viewComments/window-mode/1. (접속일: 2026.4.25.)

〈한국, 사교육 참여율 OECD 1위…학교 간 격차도 가장 커〉, 『교육플러스』, 2025.06.13.,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66>. (접속일: 2026.2.23.)

〈26살에 의대 붙었는데 가야 할까요' 삼성전자 직원 고민글 화제〉, 『위키트리』, 2025.12.17.,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02210>. (접속일: 2026.3.10.)

〈“회계사 합격했는데 3년째 백수” 회계사 500여명 시위… 무슨 일?〉, 『문화일보』, 2025.10.14., <https://www.munhwa.com/article/11539210>. (접속일: 2026.3.10.)

Abstract

Neoliberal Time Travel: Quantified Life and Regression Narrative in *Reborn Rich*

Lee, Hyo-Jeong(Sejo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terpret the “regression” (transmigration back in time) motif—which has recently established itself as a representative narrative technique in webfiction—as a specific form of time-travel narrative that reflects the neoliberal era. It analyzes how the compulsive desires of individuals, internalized under neoliberal governmentality, are expressed through the narrative structure of a “second life” in which they relive a life they “already know.”

Under neoliberalism, an individual is regarded as an “entrepreneurial self” who treats oneself as human capital and manages oneself to maximize profits within the market. Peter Miller and Nikolas Rose argue that the core mechanism and technological foundation of this self-management lie in quantification that renders human existence visible, calculable, and measurable. From this perspective, *Reborn Rich* offers a particularly revealing example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at work. The protagonist approaches life as a carefully managed portfolio, reorganizes soci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principles of efficiency, and continually validates his success through measurable outcomes.

Behind such practices of quantification lies a desire to render the future predictable and controllable. Drawing on Elena Esposito’s conceptual framework, this paper analyzes how this novel gives narrative form to this desire—specifically, the process by which the protagonist uses privileged knowledge of the future to align the “present future” with the “future present.” In so doing, the paper argues that time-travel narratives dramatically embody the desires and

anxieties of the neoliberal subject, who seeks to perfectly manage even the adventures of an uncertain future.

This article is significant in that it interprets the popular boom of regression narratives not merely as a generic trend, but as expressive of a distinctive affective structure of the neoliberal era, in which the open possibility of the future is perceived through fear of uncertainty. Through this, it offers a case study showing how popular narrative mediates between the governmentality of an era and the collective consciousness.

(Keywords: Regression Narrative, Neoliberal Governmentality, The Entrepreneurial Self, *Reborn Rich*, Quantification, Present Future, Future Present)

논문투고일 : 2026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 2026년 6월 14일

수정완료일 : 2026년 6월 17일

게재확정일 : 2026년 6월 18일